

[ TV ]

TV 6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중상 시상식 앞두고 수상 예상자 설문조사

“괴물”이 대중상 휩쓸 것 같아요”

제44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을 앞두고 실시된 수상자(작) 설문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여러 부문에서 '괴물'(사진)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한국갤럽이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만 19세 이상 네티즌 1천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리 본 대중상 시상식' 설문조사에서 '괴물'은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조연상 등 4개 부문을 휩쓸었다. '괴물' '라디오스타' '미녀는 괴로워' '가족의 탄생' '비열한 거리'가 경합을 벌이는 최우수작품상 부문에서 '괴물'은 응답자 39.6%의 지지를 받아 22.4%의 '라디오스타'를 따돌리고 수상이 가장 유력한 영화로 뽑혔다. 이어 봉준호 감독은 응답자 56.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8.3%의 지지를 얻은 '타짜'의 최동훈 감독을 누르고 감독상 수상자로 꼽혔고, 송강호는 40.4%의 지지로 '라디오스타'의 안성기를 따돌리고 가장 유력한 남우주연상 후보로 예상됐다. 이밖에 여우주연상은 '타짜'의 김혜수(42.5%)와 '미녀는 괴로워'의 김아중(36.0%)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인 배우상 부문에서는 '천하장사 마돈나'의 류덕환(30.8%)과 '중천'의 김태희(19.5%)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대중상 시상식은 8일 오후 8시50분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유적현이나 운서와 배우 김아중의 사회로 열리며, 행사 실황은 SBS TV로 생중계된다.

제44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을 앞두고 실시된 수상자(작) 설문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여러 부문에서 '괴물'(사진)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한국갤럽이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만 19세 이상 네티즌 1천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리 본 대중상 시상식' 설문조사에서 '괴물'은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조연상 등 4개 부문을 휩쓸었다. '괴물' '라디오스타' '미녀는 괴로워' '가족의 탄생' '비열한 거리'가 경합을 벌이는 최우수작품상 부문에서 '괴물'은 응답자 39.6%의 지지를 받아 22.4%의 '라디오스타'를 따돌리고 수상이 가장 유력한 영화로 뽑혔다. 이어 봉준호 감독은 응답자 56.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8.3%의 지지를 얻은 '타짜'의 최동훈 감독을 누르고 감독상 수상자로 꼽혔고, 송강호는 40.4%의 지지로 '라디오스타'의 안성기를 따돌리고 가장 유력한 남우주연상 후보로 예상됐다. 이밖에 여우주연상은 '타짜'의 김혜수(42.5%)와 '미녀는 괴로워'의 김아중(36.0%)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인 배우상 부문에서는 '천하장사 마돈나'의 류덕환(30.8%)과 '중천'의 김태희(19.5%)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대중상 시상식은 8일 오후 8시50분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유적현이나 운서와 배우 김아중의 사회로 열리며, 행사 실황은 SBS TV로 생중계된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program details including time, title, and channel.

MBC '태왕사신기' 방영 또 한 주 늦춰진다

시청률 높아진 '신 현모양처' 연장 방영따라

MBC 월화 드라마 '신현모양처'(극본 윤영미, 연출 이재원)가 한 주 연장 방영된다. 이에 따라 배유근 주연의 판타지 사극 '태왕사신기'(극본 송지나, 연출 김중하·사진)는 또 한 주 연기될 전망이다. '신현모양처'는 5월 방영이 예정됐던 '태왕사신기' 방영이 지연되면서 생긴 한 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초 8부작으로 기획된 작품. 4일 MBC와 '신현모양처' 제작사인 이엔비엔티에 따르면 전날 오후 '히트' 후속으로 5월28일 첫 방송된 '신현모양처'의 방영일정을 한 주 늘려 26일까지 방영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일단 연장 방영에 대해 제작사 관계자는 "원래 10부작으로 편성됐다가 후속작 준비

문제 등 내부사정 때문에 방영지연 8부작으로 줄었다"면서 "처음 방영대로 10부작으로 종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현모양처'의 연장 방영은 본방송 보다 높은 주말 재방송 시청률의 '신전' 덕이라는 후문도 들린다. '신현모양처'는 40%를 넘는 시청률을 구가하며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SBS 월화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TNS 미디어 집계를 보면 '신현모양처' 첫 회가 방영됐던 지난달 28일 전국 가구 시청률은 7.8%를 기록했고, 2회 방송에서는 5%대에 그쳤다. 그러던 게 지난 3일 재방송에서는 9.3%로 경종 뛰었다. 흔히 본 방송에서 시청률이 낮으면 주말



시청률은 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 대부분이지만 주말 시청률이 높은 건 드문 일이다. 케이블과 DMB 등 다양한 방송 플랫폼으로 시청률이 분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볼 만한 작품을 꼭 챙겨 보는 시청자들의 성향이 일정부분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방송가에서는 '태왕사신기'의 제작 일정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벌써 수 차례 방영 일정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a horse and rider illustration, with text about 25 years of experience and 30% discount on repairs.

케이블·위성TV 6월

Large grid of TV channel schedules for YTN, MBN, KTV, MBC MOVIES, MBC 드라마, OCN, 슈퍼액션, 시네마 TV, 채널 CGV, 캐치온 Plus, XTM, 어린이 TV, OUN, 카툰 네트워크, 투니버스, 챔프, SBS 드라마, SBS 스포츠, MBC Drama.net, 코미디 TV, YTN 스타, KBS N Sports, KMTV, KMBN, KMBN, Xports, FTV 한국뉴스채널, 스토리온, 리빙 TV, 생방송, 월드비엔티 TV, 메디 TV, 바둑텔레비전, GTV, 합정 TV, EBS1, KBS Prime, GTV, Olive(Food&Life), CBS(기독교), PBC(평화방송TV), CNN, AFN Korea, 22AR SPORTS, EBS2, CH5 KCTV, CH15 CMB 광주방송, EBS2, CH5 KCTV, CH15 CMB 광주방송, EBS2, CH5 KCTV, CH15 CMB 광주방송.